

우리는 왜 “2008 Korea Android”를 준비해야 하는가?

1. 시작하며

“The frequency spectrum is technology, industry, money, culture, and power.”

“주파수는 기술임과 동시에 산업이며, 돈이며, 문화이며, 그리고 권력이다.”

- J.D. Bedin in Struzak 2000

위의 글귀는 우연히 읽게 된 "Mobile and Wireless Communications"란 책에 나온 문구이다. 그리고, 그 책 안에는 주파수 사업이 고배당 머니게임이란 말도 나와 있다.

굳이 위의 문귀를 빌리지 않더라도 최근 국내 무선통신회사들과 관련 산업의 사회적 비중을 생각해 보면, 위의 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인지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주파수라는 것이 그 자체로 공공자원”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SKT, KTF, LGT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협약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가라는 지역적 대표 기관에 의해 관리(배분, 분배, 할당)되는 공공자원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이라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이러한 법적 기반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지만, 주파수와 주파수 산업이 갖는 그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는 듯하다.

주파수라는 공공자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 요구는 여전히 묵살되고 있고, 통신업계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망개방 관련 이슈나, 요금제 이슈, 폐쇄적 플랫폼 이슈, 그리고 이통3사 중심의 독과점 이슈들은 미온적인 정보통신부와 이통3사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별로 보이지 않는 듯하다.

2007년 이동통신 분야의 가장 큰 두 가지 빅 이슈는 아마도 애플사의 iPhone 출시와 구글의 구글폰으로 대변되는 Android라는 플랫폼 발표일 것이다.

왜 사람들은, 애플의 iPhone에 열광했고, 지금의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열광하고 있는가? 그것은 iPhone이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일 것이고, 구글이 폐쇄적 이통통신 시장에 “개방 또는 오픈” 이란 화두를 던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개방성 또는 오픈성”, 왜 중요한가?

"Consumers deserve more competition and innovation than they have in today's wireless world,"

"No matter which bidder ultimately prevails, the real winners of this auction are American consumers who likely will see more choices than ever before in how they access the Internet."

“소비자는 지금의 무선 환경보다 더 많은 경쟁과 혁신을 경험할 가치가 있다.”

“누가 궁극적으로 이 경매에서 이기든 상관없이, 진정한 승리자는 인터넷을 접속하는 방법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선택을 경험할 미국의 소비자다”

위의 말은 금년 11월 30일, 에릭 슈미츠 구글 CEO가 내년 1월에 예정인 미국의 700MHz 무선 주파수 경매에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 말이다.

위의 말에서, American을 Korean으로만 바꿔보자.

도대체 한국 소비자들에겐 어떤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가?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의 한 가운데에는 Nate 버튼이 있다. 그리고 SKT는 세상의 중심이 네이트라고 한다. 하지만, 세상의 중심이 왜 Nate인가?

세상의 중심은 Nate를 선택할 수도 있는 소비자인 바로 ‘나’인 것이다.

만약 Microsoft사가 웹브라우저에 초기화면을 www.microsoft.com로 고정해 놓았다면, 세상이 발각 뒤집혔을 것이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것에 반대하지 못하는가?

유선인터넷 세상에서는, 개별 기업의 사적 소유물인 웹 브라우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공공자원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통신회사가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것에 반대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정보통신부는 뭘 하고 있던 말인가?

비단, 이런 말도 안되는 현상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USIM Lock 해제가 그렇고, 과도한 요금체계가 그렇고, 기득권자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공유되는 기술 정보가 그렇고, 망개방 한답시고 말도 안되는 콘텐츠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성인콘텐츠나 심사하면서 인터넷 전체를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말도 안 되는 것은 정말 허다하다.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이야기 해 보자.

삼성전자가 자사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천지인 한글관련 특허에서 패소했다는 기사가 몇 개월 전 나왔었다. 누가 이기고 누가 패소하고를 떠나서 말이 되는가? 그것에 특허권이 있다면 세종대왕이 특허권을 소유하는게 맞다. 휴대폰마다 천지인이니 나랏글이니..... 나참..기막힌 현실이다.

망개방을 이야기하면서 정보이용료 부과방식을 고민한다. 그럼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어 휴대폰에서만 접근하지 말라고 하면, 이통3사는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있는가? 한마디로 무선인터넷의 콘텐츠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것인데, 이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것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의 현대판 이야기인 것이다.

이 모든 상황들은 불공정한 시장 경쟁과 폐쇄적인 환경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이를 좀 더 쉽게, 유선인터넷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내가 만약 KT 망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KT에서 만든 PC만을 통해서만 접속해야 하고, 그 PC안에 S/W도 별도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들 누구나 컴퓨터 H/W 및 S/W, 콘텐츠, 기타 등등을 나름대로 선택하여 꾸밀 수 있는, 즉 DIY(Do it Yourself)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단지 KT는 유선인터넷 라인만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이동통신3사는 적정가격에 무선커넥터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선커넥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가?

그것은 보다 나은 소비자의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장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다.

분명 언젠가는 용산에서 조립PC를 사는 것처럼 휴대폰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휴대폰에 탑재될 S/W는 이곳 저곳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도 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콘텐츠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소비자 주권 시대가 올 것이라 믿는다.

이렇듯 보다 나은 무선인터넷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누구나 무선망에 쉽고 저렴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망이 개방되어야 하며,

둘째, 개방된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오픈된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다.

적어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두번째 조건인, 오픈된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픈 플랫폼인 구글 안드로이드의 한국적 적용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

“어떻게?”라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나는 완벽한 해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해법을 찾아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코드명을 가칭 “Korea Android” 또는 “2008 K-android”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3. 코드명, “2008 K-android” 프로젝트를 함께 할 분들을 찾습니다.

프로젝트 코드명 : 가칭 “2008 K-android”

목표 : 무선망의 개방과 모바일 단말 플랫폼의 개방, 그리고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

핵심 이슈 관련 전문가 초빙 :

- 법률 및 규제 관련 :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ITU 및 정부 조직 등
- 망개방 관련 : MVNO, USIM Lock 해제 등
- 요금제 관련 : 음성/데이터 회계분리기준, 정액제/종량제이슈, 데이터프리 요금제 등.
- 플랫폼 관련 : H/W, S/W(WIPI vs Open Platform),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 시장 주체 참여 관련 : 소비자, 소비자 보호 단체, 기타 전문가 집단, 언론 등
-

이벤트 :

- K-android 주체 공개 세미나 (2008년 초 예정)
- K-android 주체 자체(DIY) 폰 제작
- K-android 주체 Application 제작 및 Google Android Developer Challenge 출품
- K-android 주체 모바일 서비스 마련

함께하기 :

- <http://cafe.naver.com/mobitoday>의 2008 K-android에 게시판에 의견 개진

4. 마치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글이지만, 국내 무선인터넷 환경에 도전장을 내 봐야 한다는 생각과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치, “주파수는 공공자원이다. 이런 이유로, 이 공공자원을 임대받은 사업자의 왜곡된 시장지배력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많은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및 카페 포스팅 부탁드립니다.

2007년 12월 5일 새벽에

<http://cafe.naver.com/mobitoday> 2008코리아안드로이드
카페지기 들폴 드림.